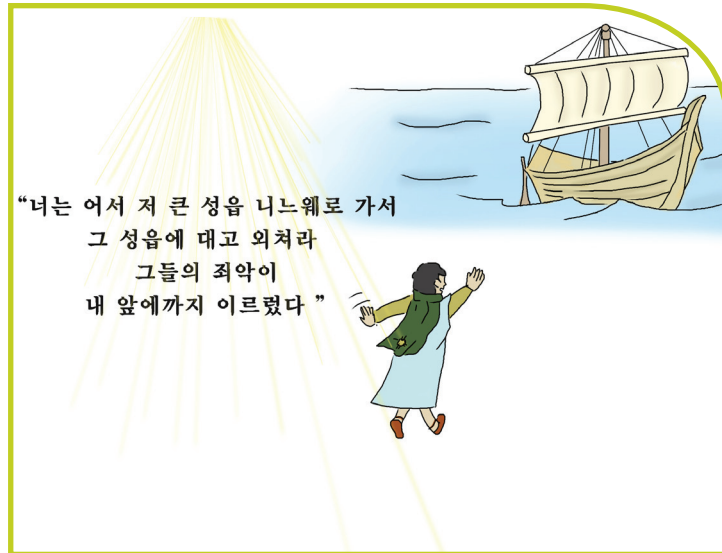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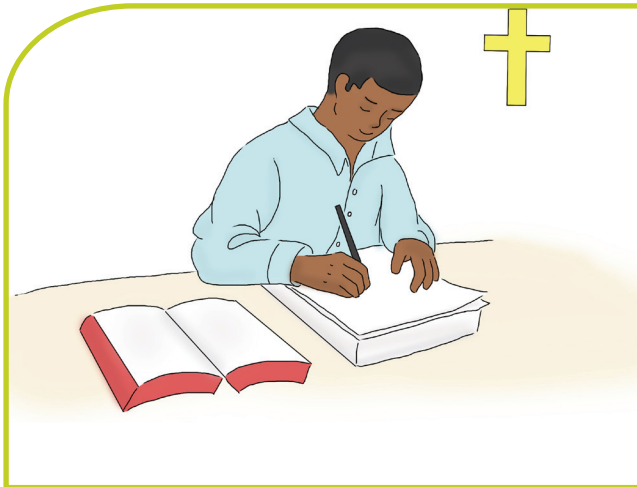


"요나 같았으나 같지 않은"



성경을 함께 읽어요

요엘 2:23-32
아모스 5:18-27
요한복음 4:1-11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멋진 하나님, 제 마음도 하나님 뜻에 따라 바꿔주세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당 1센트 혹은 장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Copyright © 2012 by Wycliffe Canada. All rights reserved. 모든 저작권은 위클리프 캐나다에 있으며, 동의/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온라인 게시를 금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와닿나요? 많은 사람들이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 가려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하는 자기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썬(Iso)도 요나 이야기가 딱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부족의 말인 마싼(Masan) 언어로 초벌 번역(처음 번역된 글을 초벌번역이라고 하는데, 초벌번역된 글은 좀 더 분명하게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중에 글을 더 고쳐야 한답니다)된 요나서 원고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썬은 23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무엇보다 아주 글을 잘 쓰는 작가였어요. 그는 그 초벌 원고를 읽고, 표현이 잘 못되거나 적당하지 않은 말이 쓰인 부분들이 많아 고쳐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성경번역사역 기관을 알게 되었고, 마싼어 성경번역 팀에 합류해서 요나서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썬은 스스로 물었어요. “왜 하필 요나서였지?” 바로 답이 나왔지요. “짧으니까!” 그러나 번역을 하면서 이썬 자신과 요나를 연결지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요나와 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달아나고 싶은 거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 여전히 작가로서 바라는 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글을 쓰도록 부르셨다고 믿어요. 마싼 말로도 많은 걸 나눌 수 있겠지만, 진짜는 성경이에요. 저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과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http://www.wycliffe.net/stories/tab-id/67/Default.aspx?id=1923&pg=16&library=T>)

이런 현지인 사역자들뿐 아니라 선교사들도 똑같은 고백을 한답니다. 린다 토마스(Linda K. Thomas)는 남편이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 헌신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깨달은 다음에는 요나와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부족의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걸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성경없는 부족들을 위해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린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은두쿠바 주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언어로 성경을 갖게 되면, 마음이 뻥 풀리고, 활짝 열립니다! 그 말씀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부족 안에 계시고, 자기 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부족과 상관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지역의 성경번역 사역에 아주 작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하늘을 나는 듯 기쁘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시고 하늘나라 사역에 초대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섬김에 동참케 해주셨어요!”

(<http://grandmaslettersfromafrica.blogspot.ca/2012/10/you-are-jonah-she-said-interruption-or.html>)

어린이 여러분,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안에만,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 안에만 가둬두고 있기 보다는 정말 기쁜 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서 그분의 복을 다른 민족들과 나누지 않을까요?